

은혜와 진리소식

2026년 8월 9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66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거듭된 병마와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큰 위로와 힘을 주시고,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 안 성 기 -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청년 시절 군 복무를 마친 후에 수원성전에서 유년부 교사가 되어 교회학교 표어인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을 적극 실천하는 생활을 하기로 굳게 다짐하고 열심히 봉사하였습니다. 직장을 알아보던 중에 기아자동차의 직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입사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가나안 성전에서 3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37년째 같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봉사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당회장 조용목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해 주셨는데, 저는 주시는 말씀에 감화되고 감동을 받아 그 때부터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신앙생활의 푯대로 삼고 주중 예배와 기도 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눈여겨보신 지금의 장모님께서 따님을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올해로 34년이 되기까지 아내와 함께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며 맡겨 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혼하여 첫아이를 낳은 뒤 회사가 부도가 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 후 회사 사원아파트를 배정받아 입주하고 회사 또한 합병으로 정상화되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일은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도우심으로 기억됩니다. 그 당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치열한 경쟁을 뚫고 회사 사원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 달 후에 우리나라에 IMF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가족을 위해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안전한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후 2002년에 평택 안중으로

이사하여 안중성전에 출석하여 주님을 섬기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난 10년의 시간은 지독한 병마와 씨름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질병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여러 가지 수술을 반복해서 받으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견디기가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이 계속되나요?” 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확실함과 두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질병의 시작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신장의 이상 소견이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신장암’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여보! 나 신장암이래”라고 하였던 아내의 차분한 음성으로 “수술할 수 있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술할 수 있어서 감사하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저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2016년 2월에 신장암 진단을 받고 오른쪽 신장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료진을 통해 치료의 길을 열어 주시고 수술이 잘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행히 1기라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는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는 담낭염으로 인해 담낭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되었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질병이 찾아와서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어서 2021년에는 왼쪽 눈에서 황반변성과 녹내장이 발견되어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심장에 강한 통증을 느꼈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여러 병원의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2023년에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염증 때문에 심장이 자극을 받아서 심한 통증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질병은 만성질환으로서 평생 통증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2월의 건강검진에서 또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정형외과 진료를 받은 결과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사지가 마비될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목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한 달 뒤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여 뼈에 있는 고름을 긁어내는 두 번의 큰 수술과 함께 무려 스무 번의 세척 수술을 받고는 재봉합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를 안아 주시고 위로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루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과정 속에서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마음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

시고 더 굳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가족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 저를 위로해 주셨고, 교회에서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2024년 7월에는 간경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이미 여러 번의 수술과 치료과정을 겪었던 터에 또 다른 큰 질병과의 싸움은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고 이기기가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제가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희망의 빛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며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생활습관을 바꾸고 운동과 체중관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3월의 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엿그제 7월에 받은 검사에서는 간경화 증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복용하는 약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 주치의 선생님께 ‘꾸준히 운동하고 체중관리를 잘하면 간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경에서 저를 건져 주신 분, 저를 치료해 주신 분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떤 상황에서든 치료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당회장 조 목사님의 말씀과 신유기도를 통하여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었고, 그리고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당회장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를 살리는 위로와 지혜와 능력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의 사랑 또한 병마와 싸우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참으로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날들입니다. 건강하게 숨 쉬고,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귀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병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더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었으니 그동안 겪은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겸손과 감사를 배웠고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배와 주님의 일에 두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건강관리를 잘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들을 선용하여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와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하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시편 103:2~4). 할렐루야!

구역공과 제4권 (2단원 : 십자가의 도)

(제10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

- 본문 : 고린도전서 1:18-31
- 요절 :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 찬송 : 138장(새찬송가 151장), 202장(새찬송가 268장)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7)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복음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매우 비중있게 다루고 있으며, 이 점은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아무런 장애없이 수월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부터 이 도(道)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거리키는 것이요 미련한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런 사정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과거에 비해서 그리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 믿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대로 조상 아담에게서 유전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사망에 처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에게 매여 일생에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죄책과 사망과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인류 역사에는 많은 성인이 나타나 이 같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시도해 왔지만 어느 누구도 바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까닭은 그들 스스로가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책과 사망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인간들을 해방시켜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고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3.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처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은 달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두고 사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이천 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초대 교회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갖은 핍박과 환란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 이후부터는 그 때까지 애지 중지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고 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도 바울의 유일한 사랑거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사도 바울만의 사랑일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널리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실상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즉 믿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되”(고전 1:22,23)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없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박혀 처형당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니 그들은 납득할 수 없을뿐더러 거리키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방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로마의 집정관 시저와 같은 위대한 정복자를 메시아로 추앙하는 것이라면 모르되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사람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미련한 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고 동시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곧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지혜로써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는 구원의 도리를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력함을 겸손히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마 11:25,26). 만일 구원이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일생 동안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날 때부터 인간은 타락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엡 2:3). 인간이 고안해 낸 종교나 철학이나 도덕과 같은 것은 마치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으며, 결코 죄의 종된 상태에 처한 인간을 해방시킬 능력이 없습니다(렘 2:13). 또한 인간들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하신



- 안양 : 경기도 안양시 민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 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 경기도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 과천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 경기도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 판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02-2632-3731
- 산본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 경기도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영통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 포일 : 경기도 의왕시 내소로 70-9 (내소동) T.031-422-9200
- 전원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 평택 :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안중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 양주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055-312-3731
- 용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충남로41번길 30 T.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 남양 :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서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